

『화해의 제자도』

에마누엘 카통골레크리스 라이스, 안중희 역, 서울: IVP, 2013

장 경

서강대학교

우선, 이 책의 공저자 에마누엘 카통골레(Emmanuel Katongole)와 크리스 라이스(Chris Rice)는 하느님이 주시는 ‘화해의 선물’에 대한 신학적 비전을 열면서, 인간의 일상적 삶 이야기에서 어떻게 화해의 선물이 드러나는지 밝히고 있다. 우간다 캄팔라 대교구의 가톨릭 사제인 에마누엘 카통골레는 우간다 국립신학교에서 철학과 윤리학, 그리고 듀크대학에서 ‘아프리카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들’에 대해 강의한 바 있다. 그리고 미시시피 주 잭슨 시에서 ‘어반 페밀리’의 편집자로 일하는 크리스 라이스는 2004년 세계복음화 로잔 회의 화해분과 의장이었다. 이 두 사람은 듀크대학교 신학대학원 ‘화해센터’를 설립한 공동 책임자이다.

『화해의 제자도』는 오늘의 ‘깨어진 세상’이라는 분열과 상호공방의 현실적 여건 속에서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평화’를 건설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붙들고 고민하는 이들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저자는 ‘일반적 세상의 화해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화해’의 차이를 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일상적 삶을 특별한 비전으로 소개한다. 다시 말해, 화해사명의 주역은 하느님이시고 신자들은 그런 하느님 화해여정에 함께하는 동행자로서, 하느님 이

야기가 화해여정의 시작이며 기초라는 것을 독자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두 저자들은 또 한 화해와 평화를 위한 활동이 급박하고 절실할수록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여유로운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걸음 물러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폭력으로 불붙는 현실 너머로 초월세계가 열림을 인정하게 된다고 피력한다. 따라서 물러선다는 것은 현실도피가 아니라,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비전에 대한 신뢰를 열게 한다. 따라서 화해로서의 평화가 인간 외부에 있는 문제와 폭력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거대한 비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변화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시공간 세계의 인간 여정에서 일상적인 평화와 화해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구체적 나의 지역이라는 참여장소’를 함께 엮는 지속적 과정이 된다. 이 여정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본적 기준은 ‘장기적 지속성’이다. 이는 변화를 달리 보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 장기적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삶의 여정을 가는 동안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건디어 내시어”(히브 12,2), 하나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화해가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며 살기 위해서는, 훈련과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추구’가 이 긴 여정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화해의 요청을 ‘당위’와 ‘의무’뿐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참된 것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로 바라보게 한다. 이것은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죽음과 부활의 여정이고, 떠오르는 희망의 표지를 보는 여정이며,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하신 새 창조를 맛보는 여정이다. 여기 ‘원수와 이방인’이 친구가 되는,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더 심오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공간이 필요하다. 이 일은 우리 생애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완전히 고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새로운 우정공동체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행적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 이 깨어지기 쉬운 시대에 이루어진다. 단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 여기’ 일 뿐이다. 우리는 단절의 현장으로 들어가 동료들과 함께 천천히 멀리 여행하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충분한 여유(분노나 보복이 아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만일 가장 가까운 사람들(매

일 보는 자녀들,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 평화의 메시지(선교사명)를 전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 화해여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성경은 태초부터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조화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주신 첫 선물이라는 것을 재발견하게 해준다. 세상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 창조라는 그분의 선물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려 할 때, 종종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을 중심에 놓으려 한다. 그러나 우리 삶의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데서 시작한다. 이 이야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2코린 5,17,19) 화해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생명과 연결될 때, 이 세상에 화해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라는 부르심은 분명하고 긴급한 요구가 된다. 성경의 독특한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화해여정의 선물과 도전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상상력을 키울 수가 없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하고자 한다. 화해여정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의 살림이다.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이지만, ‘개인적,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서 삶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총체적이다. 화해란 단순히 이웃과 잘 지내거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화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우정어린 미래를 지향하는 변화의 여정이다. 이 화해여정에는 탄식의 훈련이 필요하다. 탄식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화해란 ‘진리와 회심과 용서’를 포함한 여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에 항상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지만, 희망의 능력을 지니려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화해여정은 침체되고 느린 현실 속에서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아울러 희망의 표지를 보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때, 과거의 고통과 아울러 용서의 요청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평화로운 내일을 바랄 수 없다. ‘기억 없는 화해’, ‘친교 없는 정의’는 둘 다 기억이 빠져있다. 첫째는 역사의 상처를 잊고, 둘째는 부활의 약속과 용서의 요청을 잊은 것이다. 그리스도교적 화

해의 비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런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끝으로, 화해소명에는 교회를 필요로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화해라는 선물로 인해 가능해진 사회적 존재를 보여주는 ‘시범 사례’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임무는 세상의 분열과 폭력 이야기에 개입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 평화를 나타내는 성령의 지속적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비롯되는 대안을 전혀 알지도 못할 것이다. 이 화해소명은 특별한 종류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또한 길러낸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적 비전에 뿌리박고, 완고한 현실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일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영적 훈련과 회심은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내며, 이를 위해 좋은 멘트뿐만 아니라, ‘기도와 용기, 기쁨, 실제적 지혜를 갖춘 생활 방식’이 따라야 한다. 죄로 깨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국가, 민족, 인종, 성, 여성과 남성, 권력과 카스트제도’와 같이 이 세상을 나누는 경계는 하나님의 사랑공동체라는 새 창조에 반대한다. 하나님 공동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라 3,28)이다. 따라서 화해란 ‘욕망, 습관, 충성의 변화’를 요구한다. 회심이라는 길고 값비싼 여정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만 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런 변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상상력과 회심은 화해의 핵심적 요소이다. 화해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화해 사역은 기법이나 방법론의 훈련보다 스토리텔링과 대화적 교육을 통해 더 잘 유지된다. 이 책이 보여주듯 하나님과 우정을 쌓음으로써, 성경과 신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보고 배움으로써, ‘화해’는 그리스도인의 평범하고 일상적 삶의 방식이 되어간다.